

일본무역보험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

- 일본무역보험은 '16년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, 해외 출자 리스크를 감소시켜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를 지원
- 또한 농림수산업 분야나 양상(洋上) 유전 등 유망 시장에 대한 보험 부여도 강화, 컨트리 리스크 등을 피하는 소극적인 일본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

□ NEXI 보장 범위 확대

-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(NEXI :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)은 '16년부터 인프라 수출이나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할 방침
 - 분쟁이나 정책 변경과 같은 컨트리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산이나 지불 지연 등 출자 상대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손실 리스크도 보장
 - 해외 출자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일본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를 후원
- 확대 대상은 일본기업이 현지자본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·융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
 - 사업 리스크가 큰 신흥국이나 분쟁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부여되는 사례가 많아 NEXI의 인수 잔고의 약 40%를 차지함
 - 이 보험은 지금까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·융자의 형태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를 구분, 자기자본인 보통주식이나 자본과 부채의 중간인 우선주식,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분쟁이나 천재지변, 외국정부의 정책 변경과 같은 컨트리 리스크로 인한 손실만 보장
- '16년부터는 이러한 컨트리 리스크 외에도 합작 상대 기업의 도산이나 반제 지연,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같은 기업의 개별 사정에 의한 손실도 보장
 - 향후 투자 리스크가 작은 일반 융자뿐만 아니라 사업 파탄 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금회수를 뒤로 미루는 보통주식이나 후순위채권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음

- NEXI가 개별 리스크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고속철도의 정비, 대형 의료기기의 수출 등 현지 프로젝트 운영기업에 대한 출자가 조건이 되는 사례 증가
 - 사업 운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 등은 출자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인프라 수출이 잘 안 되는 원인
 - 보장 범위 확대로 일본기업은 보통주식 등의 출자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하기 쉬어질 것으로 예상
- NEXI는 컨트리 리스크로 인한 손실 보장 비율도 인상, 원래 손실의 95~97.5%이었지만 '16년부터는 100% 보장
 - 분쟁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기업의 손실은 없으며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음

□ 기타 NEXI의 최근 동향

- NEXI는 미쓰비시상사의 남미 칠레 연어 양식 사업에 대해 테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무역보장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, 무역보험은 지금까지 제조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
 - 세계에서 수산자원을 둘러싼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리스크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식료의 안정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
 - 러시아는 배타적경제수역(EEZ)의 연어·송어의 유망(流網)어업을 '16.1월부터 금지할 예정으로 향후 양식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자연재해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양식 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아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보험의 적용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임
- 또한 브라질에서 양상 유전*의 개발 사업에 일본우선(郵船)과 미쓰비시상사가 참여하는 사업 회사에 대해 일본 메가뱅크 등 은행 연합이 융자하는 4억 달러에도 보험을 부여
 - * 유전은 상파울루 앞바다 250km, 해저 5000m에 위치. 전용 선박은 하루 생산능력이 원유 15만 배럴, 가스 600만 ㎥로 '16년부터 생산 개시 예정
 - 전용 선박으로 해저에서 원유를 퍼 올리는 사업은 잠재력이 높으므로 이 분야에서 과거 최대의 보험을 부여하여 개발을 지원

- NEXI는 ‘14년 여름에도 미쓰이해양개발 등이 참여하는 브라질 앞바다 양상 유전 사업에 대해 약 3억 4000만 달러의 보험을 부여,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양상 유전 개발은 서아프리카나 북해에서도 사업화가 진행되는 등 유망한 분야
- 한편 NEXI는 ‘15.7.14부터 베네수엘라 대상 무역보험의 신규 인수를 정지, 자동차를 수출하는 상사가 대금 회수 불능으로 손실을 입어 약 200억 엔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부여는 어렵다고 판단
- 베네수엘라는 원유 자원을 무기로 재정지출을 증가해 왔지만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외채무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
-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무역의 96%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지만 원유가격 지수는 ‘14.6월에 비해 약 절반까지 하락, 상사에서 제품을 받은 현지기업이 현지통화(볼리바르)를 미국 달러로 교환할 수 없어 지불 지연이 지속
- 무역보험의 신규 인수 정지는 1980년대 전반 중남미 채무위기 시의 브라질, ‘08년 결제자금이 부족한 쿠바 등 사례는 많지 않지만, 일본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나 카카오를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보험 인수 정지가 일본기업의 중남미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
□ 시사점

- 유망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·투자 전략이 불가피하지만 리스크를 회피하여 해외 전개에 소극적인 기업이 많음
- 손실 리스크의 감소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 진출을 추진할 수 있게하므로 수출 부진 해소가 기대됨
- 또한 진출 대상국의 수요나 출자 조건의 변화를 파악하고 무역보험의 보장 범위, 분야 등 더욱 확대할 필요
- 한국무역보험공사(K-SURE)는 ‘15.8.17 시중은행 6곳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과 해외 프로젝트 금융 확대를 위한 「해외 SOC펀드 금융지원 협약」을 체결
- 은행권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하고,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의 원리금 미회수 위험을 보증해 줌으로써 은행의 적극적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- 협약 은행별로 3억 5,000만 달러의 금융 한도를 약정하고 우량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대출함으로써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
- 한일 간 무역, 제3국 공동 진출 등 한일 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역 보험 분야의 협력이 필요
 - NEXI와 K-SURE는 '11.2월 재보험 협정을 체결,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시 원스톱으로 무역보험을 인수, 양국의 수출 비율 등에 따라 리스크를 분담
 - 미즈호 코포레이트 은행은 '10.9월에 K-SURE와 무역금융 분야에서 포괄적인 업무 협력 협정을 체결, 한국기업의 對日수출 시 용자나 무역보험 뿐만 아니라 한일 기업 연합으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할 때의 협력도 지원 내용에 포함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5.8.11, 2010.9.14), 산케이신문(2015.7.28), 문화일보(2015.8.19)